

수필의 시대: 1960년대 수기, 수상, 에세이*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의 수필을 중심으로

박숙자**

1. 1960년대와 수필론
2. 수상, 수기, 에세이: 수필이라는 기호
3. 시민교양에서 국민윤리까지: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의 수필
 - 3-1. 전후 '고독한 자의 자기계발과 윤리
 - 3-2. 민족주의에 근거한 자기수양과 소명의 논리
 - 3-3. 소시민의 삶을 객관화하는 성찰과 유머
4. 1960년대 철학자의 수필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수필의 시대'로 평가되는 1960년대를 돌아보며 '수필'을 둘러싼 담론적 길항과 철학자의 글쓰기가 확장시켜낸 수필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에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은 연세대, 숭실대, 서울대 철학 교수이자 다량의 수필집을 내는 작가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수필 자체를 저평가하는 문학사 내부의 편견과 수필의 장르적 특성을 '문학적인 것'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관행이 연동한 결과이다. 1960년대 수필이 풍미하게 된 것은 전쟁과 4.19를 거치며 개인의 경험과 사유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요구가 근간에 깔려 있다. 철학

* 이 논문은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한 <2020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제>(2020.6.18)에서 발표한 글이다.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조교수

자의 언어는 시민교양과 국민도덕이 부재하던 당대 독자들에게 1인칭 글쓰기의 다양한 감각으로 수용되었다. 김형석은 역사적 체험에 근거한 위로와 극복의 서사로, 안병욱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자기 수양과 소명의 논리로, 그리고 김태길은 소시민의 삶을 객관화하는 성찰과 유머로 1950-60년대 공론장의 결락을 메웠다. 다만, 철학자의 수필이 당대의 공적 담론과 연동하지 못하면서 1970년대 시민교양을 촉발, 매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1960년대 수필이 역사적으로 부상하는 지점에서 드러나 ‘수필’ 장르의 특성과 이와 연동하며 풍미한 철학자의 언어가 지닌 문화사의 공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했다.

(주제어: 수필, 수기, 철학자, 시민교양, 국민도덕, 1인칭 글쓰기, 민주주의 정동, 문학적 인 것)

1. 1960년대와 수필론

1960년대는 수필의 시대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수필’이 1960년대에 출판되었다. 이윤복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베스트셀러로 풍미한 것은 물론, 각종 문예지와 학술지, 신문과 라디오에서도 수필이 기획되었으며, 철학자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의 수필 역시 시대를 관통하며 인기를 얻었다.¹⁾ 1971년 해방 이후 ‘수필문학’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문학』 창간호부터 192호까지 약 15년 간 1273편의 수필이 게재되었는데²⁾ 작품 수만 보자면 시와 소설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수필’을 쓰는 필자

1) ‘철학자이자 수필가로 이들을 언급하는 순서는 ‘수필집’ 발간 순서이다. 『고독이라는 병』이 1960년 발간이고, 『사색노우트』와 『웃는 갈대』가 1961년 봄이다.

2) 정태영, 『한국 수필문학 25년사』, 『논문집』, 경기대학교, 1971, 114-129쪽.

역시 시인, 작가를 비롯해서 공무원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월간 『중앙』이나 『여성동아』 등의 종합지에서는 일반인의 참여가 더 두드러졌다. 1960년대를 두고 “수필이 문학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읽혔던 때”³⁾ 라고 평하는 언급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수필’의 양적 확대는 기실 모호한 판단이다. 수상, 수기, 에세이 등이 풍미했지만 ‘수필’의 하위 장르로 인정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당시 맥락에 따라서 대립되는 장르처럼 간주되기도 하고 또 하위장르로 평가되기도 하면서 수필의 외연은 확대되었지만 문학사적 인정이 부재한 채로 남아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수필 장르가 적극적으로 탐색되기 시작하면서 수필의 하위 장르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다만, 여전히 문제적인 지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에세이’와 ‘수필’이 이질적인 장르처럼 간주되는 부분이다. 이는 1930년대 문학장 안에서 시작된 일이다.

1930년대 수필이 역사적 장르로 부상하면서 이양하 김진섭 등이 ‘수필’가로 호명되었으며 이태준과 이효석 이상 역시 소설 못지 않게 수필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학예면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문학의 대중화 현상으로 논의하기도 했지만⁴⁾, 분명한 것은 문학 장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글쓰기로 외화시켜 내고자 한 역동의 발현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수필’이 ‘붓가는 대로’⁵⁾ 쓰는 것이자 “숨김없이 자기를 말하는 글”⁶⁾이라는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수필’을 ‘문학적인 것’으로 한

3) “수필이 문학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읽혔던 때가 있었다. 1960년의 한때라고 생각된다. 이어령, 김형석, 안병욱 등의 수필집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김상태, 『소설과 수필의 경계』,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27쪽.)

4) 조연현은 1930년대 학예면의 발달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이 동시에 발달하는 과정에 ‘수필’의 양적 확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514-515쪽.)

5) 김광섭, 『수필문학소고』, 『문학』 1호, 1934.

정하려는 담론 역시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에세이’와 ‘수필’을 구분하고자 했다.⁷⁾

이는 1960년대에도 다시한번 반복되었다. 맥락에 따라 수필을 에세이와 다른 장르로 구분하려고 했다. 이는 ‘수필’을 ‘문학적인 것’으로 한정하려는 기획이다. 그러나 수필이 품미하는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수필’이 선형적인 문학장르로 대중독자에게 일정한 반향을 얻었다기 보다 오히려 개인의 사유와 경험으로 말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요구가 연동하는 징후라는 점이다. 1960년대를 전후해서 수필이 품미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요구가 맞물린 결과이다. 전후의 장애, 이산, 고아, 가난의 ‘사연’을 드러내는 데 1인칭 산문의 형식이 적합했으며 공동체의 복원과 재건을 위한 질서를 모색하는 데에도 체험과 사유의 글쓰기가 필요했다. 4.19 이후 민주주의의 기대와 의지 속에서 각각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 등이 집합적으로 표출되면서 공동체의 복원과 조국의 재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수필 안에 복합적으로 투영되었다. 이는 ‘문학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서정성과 사적인 기록을 넘어서는 대중 의식의 발현이었다.

6)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인간에 대한 흥미에 따라서 소설가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볼 때에 거기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글을 수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거나 “숨김없이 자기를 말하는 행위”(김진섭, <수필의 문학적 영역> (하), 『동아일보』, 1939.3.23.)라고 쓰고 있다.

7) 김현주, 「1930년대 수필 개념의 구축 과정」, 『민족문화사연구』 22, 민족문화사연구소, 2003, 272-273쪽. 1930년대 ‘수필’ 논의는 이외에도 문혜윤(「1930년대 수필의 장과 장르의 역학」, 『반교어문』 29, 반교어문학회, 2010; 「수필 장르의 명칭과 형식의 수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48, 2008)과 이윤희·김수지·류수열이 공동 연구한 「수필 개념을 둘러싼 학술담론과 교육담론의 긴장」, 『문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도 1930년대 수필이 품미했지만 ‘수필’ 장르의 불확정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리터러시 교육과 저널리즘의 확대 등이 결합하며 확대된 것이다.⁸⁾ 일반 시민들의 쓰기 능력이 1954년 1차 교육과정 이후 안착되면서 학생, 여공, 공무원, 교수와 고학생 할 것 없이 수기와 에세이를 읽고 썼다. 1960년대 라디오 기획으로 여공과 식모들의 수기 등이 기획될 수 있었던 것도 리터러시 능력의 향상과 연동하는 것이었다. 또 이 과정에서 고통을 객관화하고, 체험을 사회화하고자 하는 집합적 마음이 표현되었다. 국민학생 이운복의 수기를 읽고서 가출한 어머니를 찾아주려고 했던 독자들의 캠페인이나 전혜린의 죽음 이후 대학생들이 모여 여러 글쓰기를 책으로 묶어낸 기획 모두⁹⁾ 개인의 언어를 통해 공적인 질서를 상상하고자 했던 1960년대 집단지성의 발현이었다.¹⁰⁾

1960년대 수필을 문학 장르로 판단하기 전에 대중적 반향을 낳았던 1인칭 글쓰기 자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¹¹⁾ 또 이런 맥락 속에서 철학자의 수필이 어떻게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철학자의 수필’을 당대의 포괄적인 수필 글쓰기의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1960년대 ‘수필’에 대한 논의가

8) <안정선 보여주는 잡지구독자 매스콤 봄 탄 수기 1위>, 『경향신문』, 1965.1.25. 5면.

9) “전혜린 전집을 출판시킨 것이 그의 후배들이었고 바로 이들이 어떤 책을 사느냐에 따라 베스트셀러의 판도가 바뀐다”(김병익, <청년문화의 태도>, 『동아일보』, 1970.2.19.)

10) 1960년대 이운복의 수기와 전혜린의 수기가 1960-70년대에 걸쳐 독자들에게 열광적 지지를 받은 것과 관련, 공론장에 이입되거나 번역되지 못한 말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박숙자, 『1960년대 수기와 민중』, 『어문연구』 47-3, 2019; 박숙자, 『여성은 번역할 수 있는가』, 『서강인문논총』 38, 2013).

11) 특별한 형식 규정도 없는 수필은 ‘세계를 허구적으로 상상해내는’ 소설의 기준으로 보아도 ‘기준 미달’이고, 서정성을 형식적 원리로 하는 ‘시’의 기준으로 보아도 함량 미달이다. 뿐만 아니라 ‘극’이 전제로 하는 ‘무대’라는 허구적 공간과도 차이를 보인다. 그에 비해 수필은 ‘나의 경험과 사유를 근간으로 서술한 산문으로 특별한 형식적 특징이 없다.

전무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글을 문화사 안에서 다루는 첫 시도인 만큼 각각의 글이 독자들에게 대중적 반향을 얻었던 지점에 우선 집중할 생각이다.

2. 수상, 수기, 에세이: 수필이라는 기호

‘철학자이자 수필가’라는 명명이 지금에 와서는 자연스럽지만, 1960년대까지 이런 언급은 자연스럽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았다. 『고독이라는 병』(1960), 『사색노우트』(1961), 『웃는 갈대』(1961) 수필집이 베스트셀러로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이들은 ‘수필가’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철학자’에 좀더 비중을 두면서 ‘수필’을 본외의 부가적인 일로 언급했다. 이들이 연세대, 숭실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1980년대 문면에서 종종 ‘철학자이자 수필가’로 자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1960년대 ‘수필’이 지닌 다소 복합적인 문화사의 맥락과 연결되는 반응으로 보인다.¹²⁾

앞서 일별한 것처럼 1950-60년대 ‘수필’이 대중적인 장르로 풍미한다. ‘수기’, ‘수필’, ‘에세이’, ‘수상’, ‘기행’ 등의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수필의 하위 장르로 볼 수 있는 여러 기호가 동시에 임의적인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이를테면 1956년 펴낸 책의 서두에 ‘隨想隨感’이라는 기호를 보면서 곽학송은 이 글의 서평에서 문인이 쓰면 ‘수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쓰면 ‘수상수감’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다. 문학자

12) “수필가이며 철학자로 40여 년을 교육계에”(〈토크쇼, 11시에 만납시다〉, 『경향신문』, 1985.9.18.), “원로철학자이며 수필가의 철학에세이집”(〈홀로있는 시간에〉, 『경향신문』, 1989.3.6.) 등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가 쓴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수감’이라는 기호가 쓰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당대 문맥에서 자주 보여진다.¹³⁾ 김형석 역시 『고독이라는 병』을 출판하면서 ‘수필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그림 같은 인상’이라는 식으로 점양의 표현을 사용해서 ‘수필’이 아니라고 완곡하게 말한다.

지금도 나는 나의 미숙함과 약점을 잘 아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책하지 않는 몇 사람들에게 이 글을 나누어 주고 싶은 심정이다. 책이라기 보다는 일기장 같은 생각이 들어 수필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그림 같은 인상을 나 자신이 받고 있다.¹⁴⁾

이 흘러간 십년에 수록된 사십팔편의 글을 애초 문학작품으로 써워진 것이 아니며 그래 저자는 隨想隨感이라 이름한 듯하다. 그러나 통독하고 난 나의 느낌은 도대체 문학작품으로서의 수필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싶었다. 문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가 쓴 글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수필이요 그 밖의 사람이 쓴 글을 그렇지 않단 말인가¹⁵⁾

수필의 장르 인식이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1인칭 산문을 지칭하는 쓰기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필’을 문학으로 한정하려는 시도 속에서 오히려 다양한 수필의 하위 양식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1954년 자유문학상을 선정하며 ‘수필’ 부분을 넣고 있으나¹⁶⁾ 수필 수상자는 없었다. ‘문학상’의 범위로 ‘수필’을 선별하고자 했지만 심사자 대부분이 소설가와 시인으로 구

13) 1955년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쓴 수필을 두고 『수상수감』, 중앙대학교문화부, 1955.2.20.

14) 김형석, 『머리말』, 『고독이라는 병』(김형석 에세이 전집 7), 삼중당, 1972.

15) 광학송, 〈흘러간 십 년, 손진규저〉, 『동아일보』, 1956.9.18.

16) 〈문학부흥과 재건협조제2회 수상의 자유문학상〉, 『동아일보』, 1955.2.4.

성된 것처럼 ‘수필가’의 이름으로 소개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¹⁷⁾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학으로서의 수필’이 소설이나 시처럼 많지 않았던 것이고, 이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단 내부에서 빚어진 ‘수필’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인정 문제이다. 발표된 작품 수만 본다면 ‘수필’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수필 수상자를 계속해서 내지 못했던 것은 ‘문학으로서의 수필’이라는 규정이 ‘수필의 문학성’ 논의로 발전하지 못한 채 현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수필가’라는 이름은 오히려 외국 필자들을 소개할 때 더 많이 쓰인다. 1930년대에도 그랬지만 수필의 기원으로 베이컨과 몽테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반복되는 관례였고 규범이었다. 즉 ‘문학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필자들이었지만 관례적으로 지면에 따라 수필가로 수용했다. 1955년 『사상계』 19호(1955. 2.)에 ‘수필란이 생기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시론이나 평론, 문학 등이 주로 다루어지는 『사상계』에서 ‘수필’ 코너가 생긴다. 1955년 목차를 참고하면, 권두언·연구논문·평론·수필·내외전망·시론·문예·연재부록·독자통신 등이다. 글의 배치만 놓고 보면 주로 이론적, 보편적 학문 분야에 속하는 글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현실진단이 주를 이룬다. ‘수필란’의 위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문학으로서의 수필’을 전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문예란’에 수필을 배치했을 것이다. 수필란의 필자들은 전영택, 엄요섭, 이어령, 손우성, 신상초 등이었으며 문학, 신학, 언론인 등으로 ‘문인’이나 ‘문학자’로 한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공히 자기 경험에 근거한 1인칭 산문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에세이’의 번역어로서 ‘수필’

17) 피천득, 전숙희 정도가 수필가로 언급되고 있다. 『수필』 잡지 등에 적힌 인사동정란을 보면 ‘수필가로 언급되어 있는 작가는 이보다 많으나 동인지가 아닌 일반 언론에서 ‘수필가로 호명되는 인물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을 차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50년대 ‘수필’의 기호는 ‘문학으로서의 수필’과 ‘에세이로서의 수필’이 동시에 공존, 병존하는 것으로 지속된다. “한국 신문화 60년사에 없던 수필지”¹⁸⁾가 1961년 『수필』 잡지로 창간되었는데 이 잡지 창간호에 실린 『수필의 정체』에서는 essay의 번역어로서 수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수필의 정체를 밝혀 새로운 정신문화영역에 투석이 되고져 하니 그 고난도 미리 짐작 가는 바이다”¹⁹⁾라고 하면서 ‘수필’을 둘러싼 담론적 갈등을 에둘러 드러내기도 한다. 『수필』 3호에서는 수필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수필은 있으나 옛세이는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생각되어진 사상이 아니라 느껴진 사상이 옛세이가 아닐까 한다”²⁰⁾로 언급하며 ‘에세이로서의 수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여하튼 1961년 발간된 『수필』 잡지에서는 1호에서 3호에 이르기까지 ‘일기’, ‘기행’, ‘단상’ 등의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철학자 베이컨의 수필을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수필 사상이 순례’라는 특집을 통해 ‘수필’과 ‘사상’이 인접해서 쓰이는 역사를 자연스럽게 선보인다. 또 ‘여류수필’, ‘학생수필’ 등을 하나의 코너로 배치해냄으로써 ‘수필’의 기호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분명히 보인다. 1963년 수필 동인지로 발간된 『에세이』²¹⁾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 지역 문학 동인들이 만든 동인지 제목이 ‘에세이’인 것은 본인들의 수필을 ‘에세이’ 기호로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수필의 개념이 정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필의 외연이 확장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²²⁾

18) 『후기』, 『수필』, 수필사, 1961.4, 50쪽.

19) 『수필의 정체』, 『수필』, 수필사, 1961.4, 2-3쪽.

20) 윤원호, 『수필과 옛세이와』, 『수필』, 수필사, 1961.6, 43-44쪽.

21) 〈수필 문학동인지 『에세이』 창간〉, 『마산일보』, 1963.7.19.

22) 1970년대 『수필문학』이 창간되면서 수필 개념을 ‘문학’으로 한정하려는 시도가 재차 반복된다. 특히 이 잡지 창간 특집으로 〈수필과 40대 문학 진단〉이 기획되는데 이

그러나 ‘수필’을 둘러싼 두 개의 기획은 여전하기도 했다. 1965년 〈수필문학전집〉 5권으로 발간되는데 이희승부터 양주동 김동환 마해송 김소운 심훈 등 전적으로 문학자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발간된 1966년 〈세계수필문학전집〉의 1권 한국편은 ‘수필문학’의 제호로 김형석, 김태길, 안병욱과 함석헌, 피천득, 박종홍까지 당시 ‘문학인’으로 상상되지 않던 필자 목록이 올라온다. 장 제목 역시 ‘지성의 좌표’, ‘삶과 죽음의 피안’, ‘비극의 풍토’ 등 ‘수필문학’의 첫 장을 ‘지성의 좌표’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²³⁾ ‘수필’과 ‘에세이’의 기호가 맥락에 따라 대립, 길항하면서 ‘수필’ 장르의 모호성이 반복되었다.

‘수필’ 개념의 불확정성과 개방성의 맥락 속에 철학자의 수필이 놓여 있었다. 더욱이 이들 수필이 특징적인 것은 수상, 일기, 소론, 수필, 에세이 등의 기호들을 넘나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필집을 동시에 발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병욱은 1969년 『아름다운 창조』를 펴내면서 “나의 제9 수상집을 내어놓는다. 나는 그동안 여러 권의 수상집을 썼다”고 말할 정도로 1970년에 벌써 9번째 수상집을 출판한다. 김형석 역시 “교수의 수상집을 6만여 권이나 찍어댈던 삼중당”²⁴⁾이라는 식으로 1960년대 활발하게 수필을 쓴다. 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필의 하위 장르에 도전한다. 1964년 삼중당에서 『김형석 옛세이 선집』을 발간하는데, 『고독이라는 병』의 서두에서는 ‘나의 처음 수필집’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같

글에서 수필을 “인간 성숙기에 잉태되는 문학” 등으로 정의한다. 이는 ‘수필’을 ‘성숙한 어른’의 문학으로 설명하며 대중적 글쓰기와 구분하려는 시도이다. (조풍연, 『수필과 40대문학』, 『수필문학』, 1972.3, 46쪽.)

23) 김형석의 수필은 『진에게 주는 글』과 『현대와 인생관의 문제』 등이, 안병욱의 수필은 『생각하는 갈대』가, 김태길의 수필은 『아담의 後裔』가 선별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수필문학’을 외연과 개념을 재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이다.

24) 〈출판계 우울한 가을맞이〉, 『경향신문』, 1963.8.20.

은 전집에 실린 『오늘을 사는 지혜』에서는 ‘가벼운 논문’이라고 칭한다. 가벼운 논문과 수필, 에세이를 미묘하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김태길의 책에서도 반복된다. 『빛이 그리는 생각들』을 보면 1부는 가벼운 글, 2부는 수상, 3부는 단상 4장은 소론 등이다. ‘수필’이라는 기호를 대신하는 다른 용어들로 책 전체를 채운다. 이는 출판부의 기획이 아니다. 1부에서부터 4부에 이르는 글의 배치에 대해 김태길 본인이 머리말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마지막 ‘소론’과 관련해서 “널리 삶의 문제에 관한 것들이며 특히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들이 많다. 내가 모랄에 관한 학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소론’ 조차 논문이 아니라 ‘개인의 모랄’이라고 분명히 한정하고 있다. 필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공히 ‘에세이’와 ‘일기’, ‘수상’, ‘소론’을 중형무진 오가며 수필의 하위 장르를 다양하게 현실화시켜 낸다.

나의 제9 수상집을 내놓는다. 나는 그동안 여러 권의 수상집을 썼다. <사색 노트> <사색인의 향연> <마음의 창문> <알파와 오메가> <철학노트> <행복의 미학> <인생은 예술처럼>, <A교수와 21장>의 뒤를 잇는 것이 아름다운 창조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창조가 되게 하자 나는 성실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양심을 생의 등불로 간직하고 50년을 살아왔다.²⁵⁾

이교수: 선생님께서는 철학교수로서 뿐만 아니라 수필대가로서도 필명을 떨치고 계신데
김박사: 철학의 연장으로 수필을 쓰고 있네만 이군이 요즘 왕성하게 발표하는 글들도 수필 아닌가

25) 안병욱, 『서문』, 『아름다운 창조』, 삼육출판사, 1969.

이교수: 저야 잡문 나부랭이지만 수필을 철학의 연장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과거 정통철학자가운데 1급 수필가들이 많았죠
김박사: 몽테뉴, 프란시스 베이컨, 파스칼 버트런드 러셀을 꼽을 수 있고 니체도 그 부류에 포함되겠지²⁶⁾

이들은 ‘문학으로서의 수필’과 ‘에세이의 번역어로서의 수필’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 맥락에서 다양한 글쓰기를 해내며 ‘수필’의 외연을 확장시켜 낸다. ‘철학의 연장으로 수필’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오가며 ‘수필’이라는 장르를 재구성하는데, 이를테면 에세이를 상상하며 ‘수상’을 쓰기도 하고, ‘수필’이라고 하면서 ‘수기’와 다를 바 없는 체험의 기록을 내놓기도 한다. 또 ‘논문’과 흡사하지만 글의 전개 방식이 다른 ‘소론’을 쓰기도 한다. 이는 글쓰기 장르의 혼동이 아니라 수필과 에세이 사이에 놓인 스펙트럼을 중횡무진하며 장르를 확대한 결과이다. 1960년대 이들의 수필이 인기를 끌면서 결과적으로 장르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역설적이게도 ‘수필’의 개념을 다시 묻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다시말해, 철학자의 글쓰기가 ‘문학적인 것’의 강박 없이 1960년대 수필의 대중적 반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이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철학자 3인의 ‘수필’을 문화사 속에서 설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수필을 ‘문학적인 것’으로 한정하며 ‘서정성’에서 길을 찾기도 했지만, 1960년대 ‘철학자의 수필’은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문학적인 것’에 경도되지도 않았고 또 스스로 철학의 바깥에서 1960년대 현실에 응답하는 ‘수필’이 무엇인지 역설해 내고 있다. 그러므로 물어야 할 것은 이들의 수필이 독자를 감화시킨 이유와 맥락, 그리고 1960년대의 대중적 요구일 것이다.

26) <은사를 찾아서-격동기 지성인은 역사 선도 자세로>, 『경향신문』, 1980.2.2.

3. 시민교양에서 국민윤리까지: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의 수필

3-1. 전후 ‘고독’한 자의 자기계발과 윤리

김형석은 1960년대 대표적인 수필가로 안병욱, 김태길과 공히 1920년 생 철학자이다.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평양 송실중학교를 거쳐 제3공립중학교를 졸업했으며 1947년 탈북해서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사로 활동하다가 1954년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30여년간 연세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1955년 『절망을 넘어서』를 펴낸 이후 1960년에 『고독이라는 병』을 출간했고 이듬해에 출판한 『영원과 사랑의 대화』로 1960년대 대표적인 수필가로 자리 잡았다.²⁷⁾

김형석의 수필집 『고독이라는 병』과 『영원과 사랑의 대화』는 1960년대 베스트셀러였다.²⁸⁾ 1965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독서조사 결과에서 인

27) 이 글에서 김형석의 수필은 1960년대 대표작인 『고독이라는 병』과 『영원과 사랑의 대화』를 대상으로 한다. 두 텍스트 모두 개작과 개정 등으로 출판사가 같아도 계속 개작, 개정되기 때문에 같은 수필이어도 인용 면수와 수록 작품이 조금씩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1960년, 1961년 발간된 판본 중심으로 논의하되, 초판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수필을 언급하기 위해 1973년 삼중당 전집 본을 부분적으로 참고할 것이다. 또, 김형석의 일기이자 자서전인 『한 인간의 이야기』(삼중당)를 부분적으로 참고할 것이다. 참고로 <김형석 에세이 전집>은 1964년에 선집본(5권)이 있고, 1969-1970년 전작집 본(10권)이 있으며, 1972-1973년 전집본(10권)이 또 있다. 모두 삼중당에서 출판했으나 책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다. (『영원과 사랑의 대화』는 지금까지 60만부 이상 팔렸다. 1955년 출판해서 2019년까지 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출판한 책이 수백 권에 이른다. 책을 발간하기 시작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책이 간행되고 있다.)

28) “출판 연감에는 ‘수필형식의 책이 소설보다도 부수를 높인 일은 과거에 없었는데 『영원과 사랑의 대화』는 그 전통을 뒤엎었으며 유사한 내용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적혀 있었다. (김형석, 『한 인간의 이야기』(김형석 에세이 전집 10), 삼중당, 1973, 355쪽.)

상 깊게 읽은 국내서적 5권 안에 김형석의 책이 꼽히는 등 1960년대 내내 독자들의 인기를 얻었다.²⁹⁾ 김형석의 수필이 당대 독자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글쓰기 방식 때문이다. 그는 해방과 전쟁을 거쳐 가난과 이산에 이르는 기간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아 동시대인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 위기를 글쓰기의 소재로 차용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인이 겪고 있는 가족적, 사회적 관계의 해체를 ‘고독’으로 응축시켜 내면서 대중독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에 응답한다.

- 고향 이 얼마나 그윽한 음향인가 부르고 보면 향기인지 꿈인지 모르는 고향의 안개가 바로 내 주위 감각 속에 찾아 스며드는 거 것 같은 음향이다. 나는 어려서 부모형제들과 더불어 산촌에서 자랐다. 일곱 살인가 되는 어떤 봄날 어머니는 나에게 우리가 저 먼 북진에서 여기로 이사온 지도 벌써 두해나 되었지 라고 말해준 일이 있었다.(202)
-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가 한다. 나는 작문 시간에 내 고향이라는 글을 지었다. 내 어린 꿈의 시절을 안아주었던 북극의 산 넷물 오막살이 밤하늘의 별들을 힘껏 아름답게 그려보았던 것이다.(203)
- 평양부근의 S마을에서 중학을 끝내고 4, 5년이나 되는 젊은 시절을 섬나라 일본의 수도 도오쿄오에서 보냈다. [...] 그러던 나에게 요사이 는 때때로 잊어버리거나 하였던 듯이 고향 생각이 떠오른다.(205)
- 인간은 왜 고향을 잃었는지 모른다.(206)³⁰⁾

첫 번째 에세이집이기도 한 『고독이라는 병』은 해방과 전쟁을 경험하며 가족과 고향을 잃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외로움, 그리움, 향수 등의 복합적 감정을 기본적인 정서로 담아낸다. 이를테면, “무척 어

29) 〈여대생과 독서〉, 『경향신문』, 1965.8.28.

30) 김형석, 『고향』, 『고독이라는 병』(김형석 옛세이 전집 7), 삼중당, 1973, 202-206쪽.

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날개라도 있으면 이 저녁 때 온 식구가 둘러 앉아 저녁을 먹는 식탁에 잠깐만이라도 다녀오고 싶은 심정이었다.”³¹⁾ 라고 하거나 “늙으신 할아버지를 삼팔선 때문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불효 자식인 내 마음은 너도 어렵지 않게 짐작하리라고 믿는다.”³²⁾라는 식으로 전후 피난민과 탈북민이 겪고 있는 아픔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김형석의 수필에는 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원리에 따른 서사적 연쇄가 역사적 경험과 연동하며 기록된다. 전쟁을 경유하며 겪은 이산과 이별의 이야기와 동시에 현재의 소소한 생활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수필이 전개되는 것도 같은 방식이다. 이를테면, 부모님과 같이 지낸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서는 ‘고향의 평화로움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려지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부모님과 헤어지던 시절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산의 아픔이 다루어지는데 두 이야기가 회상 등의 방식으로 교차하며 기록된다. 아울러 현재의 삶을 담아내는 이야기에서도 제자, 이웃, 가족 등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이 이야기 역시 동시대의 삶의 지난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형석의 수필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본인이 직접 체험한 일들을 수필의 쓰기 재료로 활용하며 각각의 에피소드 마다 아픔과 희망의 느낌을 기록하는 방식이 그것이다.³³⁾

나는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하게 보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병약한 소년

31) 김형석, 『꿈』, 『영원과 사랑의 대화』, 삼중당, 1961, 60쪽.

32) 김형석, 『진에게 주는 글』, 『고독이라는 병』, 삼중당, 1973, 266쪽. (『진에게 주는 글』은 1961년 초판본에는 실리지 않다가 1963년 개정판에서부터 들어간다. 이 글에서는 1973년 『고독이라는 병』(김형석 옛세이 전집 7권)을 참고했다.

33) 이재복은 김형석의 수필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와 진정성의 깊이를 제공”하는 글이라고 해설한 바 있다(이재복, 『사랑, 고독, 그리고 유머의 감각』, 『김형석 수필 선집』, 2017, 392쪽.)

기를 살아왔다. 그 반면에 항상 스스로를 비판해 보며 남 다른 점을 느껴 보기 좋아하는 편이었다. 느끼는 갈대 같은 어린 시절을 지내온 셈이다. 다른 모든 소년들과 같이 나에게도 즐거운 생일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어린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즐거움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성격이었다. 아버지만큼 예식과 허례를 싫어하는 분도 없을 것 같다.³⁴⁾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에 뜻을 세워 본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열네살 되던 봄 친척집 사랑방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작은 오막살이를 세우게 되었다. [...]외국제 양복 나일론 양말 구두방 구두 등은 아마도 팔자에 없을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하다. 지난 겨울에는 두세 켤레의 양말 이번 여름에는 자유시장에서 산 노우타이 한 벌과 힐런닝 샤스 두벌로 지나야 할 것 같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요사이는 점점내 수입이 늘어난다. 부지런히 쓰면 책값도 나오고 와이셔츠와 넥타이는 2,3년을 쓸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내 자신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쓰고 남은 것이 부라면 나는 지금 확실히 부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30만원만 생기면 하늘이 많이 보이는 산간에 오막살이 서재 생각도 해보고 삼천만원만 생긴다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문화관이라도 한 채 장만해 주고 싶은 꿈도 가져 본다.³⁵⁾

“잃어버린 고향”이야기와 1950년대를 살아가는 ‘가난’의 이야기가 ‘마음의 뜻’ 안에서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도 한 예이다. 이를테면 현재의 ‘가난’을 이야기하며 “지난 겨울에는 두세 켤레의 양말, 이번 여름에는 자유시장에서 산 노우타이 한 벌과 힐 런닝 샤스 두 벌로 지나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가난’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개인사와 연결된 부채감의 문제이다. 그는 생활의 여유가 생겨도 가난을

34) 김형석, 『철학적인 생일』, 『영원과 사랑의 대화』, 삼중당, 1975, 142쪽.

35) 김형석, 『부자가 된 이야기』, 『영원과 사랑의 대화』, 삼중당, 1975, 167-171쪽.

자처한다'고 볼 만큼 '절약을 강조한다. 이 일은 유학 시절의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다. 여동생의 편지였는데 집이 가난해져서 그간 살던 오두막을 팔게 된 저간의 사정을 적어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 어머니는 제 집 한 칸 갖지 못한 채 오두막까지 팔게 된 사정이 부끄러워 밤에 혼자서 이삿짐을 날랐던 것이다. 김형석은 이런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억해 낸다. "값비싼 모자, 외국제 양말, 나일론 양말" 등 "팔자에 없을 것 같은"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보다 가격이 덜한 물건만으로도 '만족하게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인데 '나 자신은'이라고 말하며 말의 여운을 남기는 것은 마음 한 켠에 '부모님은'을 동시에 생각하는 부채감과 죄의식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는 오막살이에 대한 기억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된다. 김형석은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산간에 오막살이 서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게 '오막살이'는 '열네 살 되던 봄 친척집 사랑방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작은 오막살이를 세우게 되었다.'는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근저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이 강렬하게 놓여 있다. 그래서 조금은 넉넉할 수도 있는 '현재'조차 가난했던 '과거'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가난에 머물자'는 마음이 반복해서 다지기도 한다.

아픈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삶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더욱이 김형석 본인이 지식인으로서의 자기경험을 승화시켜 사회적 역할로 연결해 낼 때 감동의 깊이는 배가된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글에서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난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고등학생이 찾아온다. 어린 학생이 생면부지의 교수를 찾

아온 까닭은 전염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화장한 후 어머니의 부재를 믿지 못한 채 죽음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학생에게 김형석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을 물어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공부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덧붙인다. 그러면서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경북대학의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직면한 어린 학생을 배웅하며 "고독과 슬픔이 한꺼번에 내 가슴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다"고 쓰면서 홀로 남겨진 고학생에 전적으로 감정 이입 한다. 본인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사회적 역할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다.³⁶⁾ 『진에게 주는 글』에서도 이런 장점이 십분 발휘된다. 아들 진이 스무 살이 되었을 때 편지 한 통을 쓴다. 이 편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여섯 살 때의 기억, 그리고 학교 다닐 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당부한다. 이 글 역시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질서까지도 연결되며 기억과 책임의 윤리를 간접적으로 체화시켜 낸다.

김형석의 수필은 해방과 전쟁, 가난과 트라우마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독'의 키워드로 삶의 부박함을 응축해내고, 이 삶을 어떻게 견디면서 더 나은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동시대 한국인이 경험했을 법한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는 힘의 원리가 바로 과거를 잊지 않는 현재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많은 독자들이 그의 에세이에 공감했던 것은 공감과 회복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

36) 김형석은 수필을 쓰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도 "항상 다루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생활에 접한 수필형식으로 각색해 본다면 젊은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실제에 있어 그는 수없이 많은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문제를 전해 듣고 있었다. 학문보다도 교육이 더 요청되고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버리지 못했다"(김형석, 『한 인간의 이야기』(김형석 에세이 전집 10), 삼중당, 1973, 354쪽.)

갈 수 있는 희망을 전했다기 때문이다. “고독에서 방황하는 지성인이여 여기에 당신의 휴식이 있다”³⁷⁾는 책의 선전 문구는 이 책을 둘러싼 감정구조를 일부 드러낸다. ‘고독’한 자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개인의 역사적 경험에 놓인 ‘고독’에 공감한 1인칭 글쓰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간 이유이다.

3-2. 민족주의에 근거한 자기수양과 소명의 논리

안병욱 역시 1920년생으로 ‘철학자이자 수필자’³⁸⁾로 활동했다. 평안남도 출생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숭실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1954년 러셀의 『세계사의 과제』를 사상계에 번역하는 것은 물론 『현대사상강좌』 연재를 하며 실존주의와 프래그머티즘, 휴머니즘 등을 소개했다. 또, 1958년부터 『사상계』의 주간을 맡으면서 번역과 집필을 하는 것과 동시에 1961년 『사색노우트』를 시작으로 『알파와 오메가』, 『마음의 창문을 열고』, 『철학 노우트』, 『생각하는 갈대』, 『도산 사상』 『아름다운 창조』 등의 수필을 1960년대에 발표했다.³⁹⁾ 뿐만 아니라 흥사단 강좌에 참여하면서 청년 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하루 바빠 군정의 시스템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나무를 우리 터전에 깊이 뿌리박게 하는 일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다. 그것은

37) <광고>, 『고독이라는 병』, 『동아일보』, 1960.12.18.

38) 『해설·교양적 지성을 위한 한 글쓰기』, 『안병욱 수필 선집』,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7, 188쪽.

39) <안병욱 에세이 전집>은 1972년 삼성출판사에서 10권으로 기획된 바 있고, 그 후 <안병욱 에세이> 전집이 전12집으로 교육도서에서 1987년 출판되었다. 또 1984년부터 삼육출판사에서 안병욱 전집이 기획되는데 1997년까지 전집 29권까지 출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역사의 최대의 챌린지다. 이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레스폰드 해야 할 것인가.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의회 민주주의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영국의 의회민주주의는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영국의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거나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만 못하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영국의 의회는 의회의 전형이요 모범으로 되어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영국식 민주주의의 장점과 특색은 어디에 있는가⁴⁰⁾

작년 정월에 카네기 製銅 공장으로 유명한 피츠버거 시를 방문한 일이 있다. 미국 철강의 사분의 1은 여기에서 산출되므로 강철의 도시라고 일컫는다. [...] 마침 하학 시간이라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길에 많이 보인다. 십자로 한가운데 어떤 부인이 제복 비슷한 것을 입고 교통을 정리한다. 나는 여순경인 줄만 알고 물어보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상하학 시간에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근의 부인네들이 오전 오후 한시간씩 자원해서 교통정리를 한다고 한다. 미국의 테코크라시란 명저를 쓴 블란서의 정치철학자 도크빌이 미국의 번영은 미국 부인들의 힘이 크다고 지적한 일이 있거니와...⁴¹⁾

위의 인용에서 보다시피 안병욱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단상이나 경험을 소재로 차용하는데, 대개는 공동체의 앞날에 대해 걱정과 기대하는 방식이다. ‘영국식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시민의 윤리’는 무엇인지 답답히 적는 글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영국 의회의 사례를 가져오고, 통학길 수신호에 참여하는 부인들을 보면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기도 한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 등으로 마무리 되는 게 일반적이다.

40) 안병욱, 『영국식 민주주의』, 『철학 노트』, 경지사, 1963, 30쪽.

41) 안병욱, 『영국식 민주주의』, 『철학 노트』, 경지사, 1963, 45-46쪽.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삶의 경험이든, 책 속의 이론이든 경험과 사유가 맞닿는 지점에서 얘기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나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철학자의 사유로 글을 시작하지만, ‘소논문’이 아니라 ‘수필’로 보는 이유는 논증과 같은 증명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보편적 상식에 가까운 ‘컨센서스’를 재차 확인하는 글쓰기 방식 때문이다. 설득이 아니라 ‘동의와 ‘공유’에 가까운 방식인 것이다. 이는 아홉 번째 수상 집인 『아름다운 창조』를 출판하면서 “우리 인생”으로 인사말을 꺼내놓는 것에서 일부 드러나듯 그에게 수필은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다. 1인칭으로 시작되는 산문이지만 때때로 1인칭이 아닌 글처럼 보이는 이유는 나와 너 사이의 거리를 마땅한 ‘당위’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늘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학문을 한다는 것과 우리들의 인간을 만든다는 것과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⁴²⁾ 라는 식의 초기 언급에서부터 이런 면모가 보인다.

이는 본받을 만한 인물을 인용하는 데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안병옥은 안창호와 이광수를 자주 언급하는데, 위인과 자신 사이에 놓인 격차와 거리를 ‘감화’와 ‘동일시’로 봉합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 수양을 통해 간극과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춘원과 ‘나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춘원의 말씀은 ‘나의 삶의 지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춘원과 안창호는 어린 시절부터 감화받은 인물로 공공연히 언급된다. 1966년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⁴³⁾를 펴내기도 하는 등 안창호의 민족의식을 수필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것도 한 예이다.

춘원이나 도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수

42) <대학생활의 반성>, 『사상계』, 1955.6., 162쪽.

43) 안병옥,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1966.

양을 닦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위하는 행동이다. 공동체를 이끄는 여러 위인들 중에서 '정신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부단히 닦아가는 위인들을 향한 존경이 유독 강한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정신력이 물질력보다 강하다고 믿는다'⁴⁴⁾는 언급이나 도산을 언급하는 곳곳에서 이런 특징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그가 "한국의 이상적 지식인상"으로 "봉사를 원리로 하는 사명인"을 이야기하면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상을 위해 일하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민족의 질병'⁴⁵⁾ '교육 입국'⁴⁶⁾ 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안병욱은 홍사단 주최 강연에서도 도산사상을 강연하는 것은 물론 아카데미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도 한다.

춘원은 나에게 도산 말씀을 여러번 하였다. 그리고 홍사단에 들라고 권면하고 홍사단 약법을 나에게 주었다 "저같이 수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홍사단과 같은 수양단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그런 준비가 되면 입단하겠습니다"고 나는 대답하였다. 춘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홍사단은 수양한 사람의 단체가 아니고 수양하는 사람의 단체요"⁴⁷⁾

나는 중학교에 다닐 때에 춘원의 책자를 읽고 도산선생의 사상과 인격을 알게 되었다. 내가 도산을 나의 생활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게 된 것은 결국 춘원의 영향 때문이다.⁴⁸⁾

한국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도산은 생각했다. 도산은 민족이 우러러 보는 인물이 되

44) 안병욱,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1966, 332쪽.

45) 안병욱,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1966, 134쪽.

46) 안병욱,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1966, 380쪽.

47) 안병욱, 『아름다운 창조』, 삼육출판사, 1970, 24쪽.

48) 안병욱, 『아름다운 창조』, 삼육출판사, 1970, 64쪽.

고 만인의 사표가 되려고 스스로 결심했다. 그는 독실한 마음을 품고 정성된 수양을 쌓았다. 하면 되는 것이다. 안해서 안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도산은 민족과 결혼했고 조국을 애인으로 삼았다. 그는 민족을 건지는 데 합당하다고 깨달은 것은 내게 이롭건 불리하건 남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성실 일관의 정신으로 민족에 헌신하고 민족에 봉사했다.⁴⁹⁾

안병욱은 안창호 책을 펴내면서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라고 일컫는다. 앞의 언급에서 나타난 바, 춘원-홍사단-안창호에 이어지는 연결 속에서 한결같이 반복되는 것은 ‘민족을 위한 수양’이다. 즉 수양은 ‘민족’의 기호 안에서 맥락화된다. 공동체를 위한 일반적인 교양이나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는 자기계발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인물’이라는 진술 속에서 한결같이 보이는 것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윤리이다. 이 윤리는 ‘사명’과 같은 말을 통해 절대적인 가치로 주어진다. 이를테면 간디를 언급하며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동지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지만 나와 같은 행동을 한다.”⁵⁰⁾고 말하며 ‘남을 움직이려거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전한다.

안병욱은 어느 글에서든 마땅한 당위와 그에 부합하는 일체화된 사명 의식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국가와 공동체에 필요한 질서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자고 말하는 언급은, 그래서 절대적 가치로 승화되는 ‘말씀’의 논리이다. 선택되거나 판단되는 근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일체화되어야 하는 주장이다. 이는 김형석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김형석이 ‘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이 살아나갈 가족과 이

49) 안병욱, 『도산사상』, 대성문화사, 1970, 31쪽.

50) 안병욱, 『아름다운 창조』, 삼육출판사, 1970, 104쪽.

웃의 온정을 윤리로 삼고 있다면 안병옥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래로 나아갈 내적 동기를 통해 현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식으로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의 절대적 가치가 1960년대 반공주의 맥락과 지근거리에서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 1인칭 수필이 지닌 ‘개인’의 이야기가 ‘말씀’의 언어로 전환되는 텍스트에서 소신이 신념으로 둔갑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민교양이 부재한 시점에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안병옥의 수필이 독자들에게 반향을 얻어낸 것 또한 분명하다.

3-3. 소시민의 삶을 객관화하는 성찰과 유머

김태길은 김형석 안병옥과 동일하게 1920년생으로 일본 제3 고등학교를 거쳐 1943년 일본 도쿄 제국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수학했다. 그 후 미국으로 유학가서 존스홉킨스대학에서 1960년 철학박사를 받은 뒤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활동한다. 1961년 『웃는 갈대』를 시작으로 1964년 『빛이 그리운 생각들』, 1968년 『검은마음 흰마음』을 수필집으로 발간했고 2007년까지 수필집과 철학서를 꾸준히 출판했다. 1960년대 활동 이후 “1970년대 수필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월간 『수필문학』의 속간과 수필의 문학성 제고를 위한 수필가들의 전국적인 모임인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창립 회장으로 헌신⁵¹⁾한 것을 시작으로 1981년 수필문우회를 발족하고 창립회장을 맡는 등 ‘수필’ 장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⁵²⁾

51) 『자은이에 대해』, 『김태길 수필 선집』, 지식올만드는지식, 2017, 196쪽.

52) 1956년 『윤리학 개설』을 시작으로 철학서 집필과 『국민윤리』 등의 교과서를 집필하

『수필』이라는 이름을 머리에 두고 글을 쓰기 시작한 지도 어언 십년이 가까워 온다. 처음부터 어떤 理論의 배경을 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붓장난』 이상의 정열이 있었던 것같이 기억한다. 내 판에는 이것을 취미로서 살리고 생활의 일부로서 대접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 철학이라는 어려운 분야에 발을 적신 사람이다. 밤낮으로 이론과 추상을 일삼아야 하는 자신의 생활이 너무나 멋없고 메마르다고 느꼈다. [...] 이러한 느낌과 뉘우침은 좀 탄 짓을 해보고 싶은 유혹으로 변했으며, 生活의 調和를 염원하는 마음을 자극하였다. 그 유혹이 계기가 되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의 하나가 隨筆이라는 異邦地帶. 수필 쓰기를 매우 쉬운 일로 잘못 알았던 모양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수필의 본질은 자아의 표현에 있다고 한다. 쓰는 사람 자신의 사람됨을 여실히 나타냄에 수필의 특성과 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수필의 본질이 자아의 표현에 있다면 사람됨에 있어서 탁월함이 없이는 수필에 있어서도 탁월할 수 없다는 이론이 성립할 것이다.⁵³⁾

나도 나름대로 수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차주환 선생이 문학의 관점에서 수필에 관심을 가진 데 비하여, 나는 철학과 관련시켜서 수필을 생각하는 편이었다. 나는 일본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철학자들이 쓴 수필을 즐겨 읽었고 철학적 사색을 수필형식으로 발췌하는 것은 난감한 언어에 가로막혀서 철학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뜻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차주환 선생은 수필의 생명은 문학성에 있다고 본 듯하며 강하고 딱딱한 글에서는 풍부한 문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믿는 듯하였다. 그러나 장기근 선생의 의견은 달랐다. 이 격동하는 시대에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경종을 울리는 글이 귀중

는 것은 물론 다수의 수필집을 발간했다. 1956년부터 2007년 김태길 수필 선집 『복덕방이 있는 거리』까지 발간된 단행본만 100여 권에 달한다. 2010년 철학과현실사에서 『우송 김태길 전집』이 15권으로 기획되어 출판되었는데, 마지막 15권 체험과 사색 편이 어린 시절부터 생활해 온 기록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 책에 『수필문학』 창간 무렵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53) 김태길, 『머리말』, 『빛이 그리운 생각들』, 1964, 삼중당, 1-3쪽.

하지, 팔자좋은 사람들의 한가로운 말 잔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였다.⁵⁴⁾

김태길의 글에서는 다른 이들과 달리 ‘수필’ 자체에 대한 장르적 인식이 자주 드러난다. 이를테면 수필을 쓰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도 철학자들의 ‘수상록’을 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그는 베이컨의 『에세이』 또는 아베 지로(阿部次郎)의 『삼태랑(三太郎)의 일기』를 읽으며 난해한 언어를 쓰지 않고 철학적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철학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다고 말한다. 특히 김태길이 중고등학생이었던 1930년대 한국에서는 ‘수필’이 새로운 글쓰기 장르로 부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해서, 그는 기존의 ‘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개개인의 모랄과 개성 표현이 가능했던 수필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태길은 수필이 독자에게 미치는 ‘감동’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말하며 “내가 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철학적 수상이 포함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수필’과 ‘철학적 수상’의 모순된 장르라는 생각 없이 ‘수필’을 생각하며 ‘철학적 수상’을 써보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글 뿐만 아니라 김태길은 ‘수필’이 ‘지방시대’의 ‘딴짓’이라고 언급하면서 장르 인식을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수필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는다.⁵⁵⁾

첫 아이가 셋을 때에는 시거운 것이 몹시 입맛에 당기더니 이번에는 신 것이 꼴도 보기 싫고 단 것이 비위에 당기니 이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징조였다. 넷째로 태아의 노는 품이 남자가 분명하다. 여자같으면 운동이 작고 바르게 꿈틀꿈틀 할 터인데 이놈은 크게 느리게 굼틀굼틀 하는 품이 대장부의 기상이 완연하다. 달수가 차서 그 대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

54) 김태길, 『외도의 시작』, 『체험과 사색』(우송 김태길 전집 15), 철학과현실사, 2010, 562-563쪽.

55) 김태길, 『검은 마음 흰 마음』, 민중서관, 1968, 11쪽.

타났을 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있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변장이었다. 찝막하게 각은 머리라든지 평평한 가슴이든지 그리고 화장이기 하나없는 얼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분명했음에도 오직 한 곳에 짓궂은 여자의 상장을 달고 있었던 것이다.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것은 나 한 사람 정도였다. [...]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순산이면 그만이지 무엇을 더 바라느냐는 광식이 할머니의 철학을 생각하였다.⁵⁶⁾

얼마동안 더 기다렸다. 그때 김태길 하는 발음이 재판장의 입을 통하여 들려왔다. 이에 응하여 ‘옛’하고 앞으로 나서는 나 자신의 모습과 심리에는 우등상을 받으려 교장앞으로 나아가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가련함이 있었다. 판사들 앞에 가볍게 경례하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을 뻔했을 때, “당신이 바로 김태길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 사건은 상대방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5월 28일에 다시 나오시오” “그러나 열시부터 나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그대로 돌아가시고 다음에 다시 나오시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례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내가 표시할 수 있었던 최대의 반항이었을지도 모른다. 법원 문을 나서면서 기일 연기의 통고를 받기 위하여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세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삼등손님은 쓰거운 웃음을 입가에 띠었다. 빵빵 관용 지이프차가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친다.⁵⁷⁾

1960년대 발표한 『웃는 갈대』, 『빛이 그리운 생각들』, 『검은 마음 흰 마음』은 김태길 수필의 초기작에 속한다.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김형석과 안병욱에 비해 주목해서 볼 지점은 ‘수필’의 미의식을 형식적 완결성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작가의 장르 인식에 따르자면 ‘체험’에 기반한 수필인데, 세세한 묘사를 통해 인물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인물이 가질 만한 감정과 느낌까지 간접적으로 드러낸 후 ‘모

56) 김태길, 『삼남삼녀』, 『웃는 갈대』, 동양출판, 1961, 22쪽.

57) 김태길, 『삼등석』, 『빛이 그리운 생각들』, 삼중당, 1964, 59쪽.

랄'이 무엇인지 밝혀낸다. 첫 번째 인용된 글은 1956년 9월에 작성한 아이 출산을 기해서 쓴 글이다. 아이를 기다리며 주위의 반응을 묘사하는데 “희망과 근심이 뒤섞인 채”로 “이번만은 아들이 확실하다고 믿는 아내”의 반응을 세세히 기록한다. 또 그간 아이 출산을 앞두고 설왕설래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주위의 조바심을 ‘매우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변장이었다는 식으로 농치기도 하면서 기대가 배반되는 풍경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낸다. 또 이런 기다림 끝에 아이가 태어나자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 순산이면 그만이지 무엇을 더 바라느냐는 광식이 할머니의 철학을 생각하였다.”로 끝내면서 아이 출산을 둘러싼 이웃들의 안도와 기쁨으로 표현한다.

『삼등석』은 재판 참석 과정에서 느낄 법한 재판부의 위압적인 처사와 재판에 임하는 시민들이 느낄 법한 위축감을 우회적인 풍자로 그려낸 수필이다. 재판장의 호명에 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위축감을 ‘우등상을 받으러 교장 앞으로 나아가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가련함’이라고 하는 언급하기도 하고, 재판장에게 경례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결의를 “내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반항”이라고 덧붙이는 부분도 해학적이다. 『공무원』이라는 글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타인을 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민의식을 호소한다. 김태길의 수필에는 당대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물군상이 그려진다. ‘복덕방 영감’, ‘부엌 언니’, ‘재판장’, ‘버스차장’, ‘이웃집 할머니’와 동료교수에서 전화교환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기 있게 다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뉘앙스를 예리하게 포착해낸다. 이를테면, 4.19를 전후한 시기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 ‘가족계획’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빚어지는 미묘한 가족 내부의 변화 등이 기록되는 것이 그것이다. 때로는 박태원의 『천변풍경』처럼, 인물군상의 미묘한 느낌까지

포착해내는 리얼리티 때문에 쉽게 작품 안으로 이입된다.⁵⁸⁾

“이 문명 시대에 집에 전화도 하나 없이”

이러한 발언이 하나의 유행가처럼 집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은 아마 4.19보다 좀 먼저일 것이다. 이 유행가에는 물론 어린것들도 일차 단결의 和唱으로써 참여하였다. (『전화』, 1962.12.26.)

‘가족계획’이라는 저 현대적인 개념의 실천적 혜택을 입지 못한 집구석이다 (『부엌언니』, 1960.12.27.)

그의 수필이 3인칭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묘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앞의 제시한 인용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 1인칭의 시선을 통해 묘사하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 사건과 맥락에 따라 매번 다른 거리두기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재판장을 그려내는 것과 이웃집 할머니를 그려내는 거리가 다르고, 시대 풍속을 체화한 아이들을 그려낼 때와 복덕방 영감을 그려낼 때가 다르다. 이 ‘거리(distance)’ 감각을 통해 작가의 윤리 의식을 드러낸다. 또 같은 맥락에서 작품마다 유머러스하게 대상을 조명해내는 것도 한결 같은데, 이 역시 작가의식의 발현이다. 유머에 대해서도 이미 밝히고 있는 바 “유우머는 자기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에서 생기는 것이었다”⁵⁹⁾ 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의 일환이다.

김태길은 직접 경험한 것이든 목격한 것이든 하나의 사건을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장면을 드러낸 후, 이를 통해 동시대의 삶의 단면을 객관적으로 그려낸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들이 가진 속물성, 권위주의, 이율배

58) 유봉희는 “우승 수필에서 격조와 일상성은 빼놓을 수 없는 미덕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유봉희, 『해설』, 『김태길 수필 선집』, 지식올만드는지식, 2017, 188쪽.)

59) 김태길, 『유우머에 관하여』, 『웃는 갈대』, 박영사, 1990, 53쪽.

반 등의 면들이 포착되지만 이를 유머러스하게 농치면서 삶 그자체를 긍정하게 만든다. 바로 소설적인 묘사와 유머가 빛나는 부분이다. 이런 태도는 지금-여기의 삶을 객관화하지만 동시에 긍정하는 태도를 만들어 준다. 이는 김형석이나 안병욱과 다른 측면이다. 삶이 지닌 서사적 힘에 몰입하는 측면은 김형석과 유사하지만 객관적 거리두기를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공동체의 윤리에 관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두 철학자와 비슷하지만 당위와 사명의 논리를 차용하기보다 개인적 선택에 좀더 비중을 두는 점이 다르다. 분명한 것은 김태길의 수필에서 드러나고 있는 소시민의 윤리 감각이 당시 독자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간 지점이다.

4. 1960년대 철학자의 수필

1960년대는 수필의 시대였다. 수기, 에세이, 소론, 수감, 수상, 수필 등의 용어가 길항하고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수의 '수필'이 쓰였다. 1960년대 '수필'의 양적 확대가 가능해진 것은 자기 경험을 객관화하면서 새로운 모랄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연동한 결과이다. 전쟁과 4.19를 거치며 고통을 객관화하고자 하는 요구와 공론장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요구가 활발해지면서 나이와 성별, 직종을 불문하고 1인칭 글쓰기가 확대되었다. '개인의 세계화' 형식인 '수필'은 이런 상황에 적합한 쓰기였다. 고학생, 이산민, 여성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자기 경험과 사유를 표현했다. 수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사유를 객관화하는 글쓰기로써 이 맥락 속의 '개인'은 '주관'이나 '사적'인 영역을 넘어선다. 수필은 공론장 안에서 인정, 공명, 전달, 각인되는 글쓰기로 개인의 경험과

사유가 '세계화'(객관화)되는 과정이다.

1960년대 수필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이다. '수필'로 통칭되는 수많은 글쓰기가 흥미했음에도 이 징후에 대한 독해가 적극적으로 도모되지 않은 이유는 학생, 번역가, 철학자들의 글쓰기를 '수필' 장르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기, 수필, 에세이, 수상 등의 진단은 장르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기보다 '수필'을 둘러싼 담론적 길항을 예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시기 '수필'로 통칭되는 1인칭 글쓰기는 '문학적인 것'으로 상상되었던 그간의 문학 범주를 벗어나는 역동이다. 부서진 공동체의 질서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에 한 개인의 서사가 필요했고, 이웃과 살아갈 시민 교양이 필요했으며, 공동체를 위한 도덕의 언어가 필요했다.⁶⁰⁾ 이는 철학자가 곧 수필가로 한 시대를 흥미할 수 있었던 맥락과 연결된다. 공동체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언어 권력을 가진 이들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철학이란 세계의 질서이자 마음의 질서였고, 이들의 수필은 바로 고독하고 고통에 빠진 대중들의 마음을 세우는 질서였다. 이는 당시 철학자를 향한 사회적 기대이기도 했다.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독자, 시민, 대중들을 향해 메시지를 냈다. 김형석은 자기 체험에 근거한 위로와 극복의 서사로, 안병욱의 민족주의에 근거한 자기 수양과 소명의 논리로, 그리고 김태길은 소시민의 삶을 객관화하는 성찰과 유머로 1950-60년대 공론장의 결락을 메웠다. 1950-60년대 척박했던 한국의 문화사 속에서 1인칭 '나의 이야기를 안정감 있게 써내려간 이들의 언어는 1인칭인 동시에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시민 교양의 힘이었다. 1960년대 철학자의 글쓰기를 '수필'로 진단

60) 김형석은 1960년대 『영원과 사랑의 대화』 발간 이후 방송과 강연에 많이 참석하는데 열화와 같은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회와 조국의 건전한 정신적 양식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던 것일까'라고 진단한다.(김형석, 『한 인간의 이야기』(김형석 에세이 전집 10), 삼중당, 1973, 357쪽.)

하고 문화사의 징후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철학’이 곧 ‘윤리’로 번역, 상상된 상황은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⁶¹⁾ 이들의 글쓰기는 ‘수필’과 ‘철학’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글쓰기 형식으로 현실화되었지만, ‘윤리’와 ‘도덕’으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았다. 이들이 ‘말’이 선택적인 시민윤리나 절대적인 국민도덕으로 전유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반공교육이 강화된 196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⁶²⁾ 이들은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동시에 ‘국민도덕’의 집필자이거나 지식생산자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의 ‘소론’이나 ‘단상’은 ‘진실’의 가치가 아니라 국가주의적 논리로 수용될 여지가 컸다. ‘윤리의식의 정립’⁶³⁾을 목적으로 각 기업체와 각급 학교에서 재교육 강좌를 할 때 손꼽히는 연사로 ‘안병욱과 김형석이 으뜸’이라는 보도나 『국민윤리』 교과목의 집필자로 이들이 활동하게 된 맥락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⁶⁴⁾ 1960-70년대 철학자가 놓인 사회적 맥락

61) 김태길의 자서전에서 1960년대 당시 “윤리학을 고급 수신(修身)비슷한 것으로” 사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김태길, 『체험과 사색』(우송 김태길 전집 15), 철학과현실사, 2010, 408쪽.)

62) 오혜진은 1960년대 ‘에세이’를 ‘위계적이고 외래적인 글쓰기’로 전제하면서 전문적 앎과 대중적 앎을 매개하지만 반공주의적, 보수주의적 의미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오혜진, 『카뮈, 마르크스, 이어령: 1960년대 에세이즘을 통해 본 교양의 문화정치』, 『한국학논집』 5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137쪽)

63) 〈직장세미나 단골연사들〉, 『동아일보』, 1979.10.

64) 『안병욱 수필 선집』에서 김용희는 “유신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젊은 후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하고 있다(김용희, 『해설』, 『안병욱 수필 선집』, 지식올만드는지식, 2017, 188쪽). 아울러 김태길 전집에서도 일부 드러나고 있는 바, 김태길은 1970년대 ‘민주화를 위한 운동’(426쪽)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학생들의 행동을 ‘좌경’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신이념의 한국 사상사적 체계화’(445쪽)를 표명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철학자의 위치와 역할을 복합적으로 읽어야 하는 단면이다.

은 개인의 내면을 다독이며 공동체의 재건으로 나아가는 시민 교양의 일선에 놓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내면을 ‘윤리’와 ‘도덕’의 이름으로 관리했던 ‘반공주의’의 시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딜레마는 ‘철학자의 수필’을 양날의 검으로 만드는 역사적 맥락이기도 하다. 이는 차후의 논의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뤄야 할 주제이다. 즉 1970년대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⁶⁵⁾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수필’이 1960년대 전후와 4.19를 거쳐 온 수많은 개인들의 사연과 기억을 공론장에 참여하는 글쓰기였다는 점을 맥락적으로 밝히고 이 과정에서 철학자의 글쓰기가 풍미한 과정을 드러내곤 했다. 분명한 것은 1960년대 수필이 ‘문학적인 것’의 경계를 흔들며 개인의 경험과 사유를 객관화하는 글쓰기로 확대되었다는 점, 또 시민 교양의 공백을 철학자의 수필이 부분적으로 채웠다는 사실이다. 다만 1970년대 자기 고통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쓰는 민중수기, 노동자 수기 등이 확대되면서 철학자들의 수필이 가지는 영향력 자체가 축소되었으며 민주주의적 정동을 실현한 담론으로 성장, 확대되지 못한 사정은 다시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문제이다.⁶⁶⁾ 즉, 1960년대 철학자의 수필은 ‘철학자’의 언어였으나 ‘철학’의 언어로 담론 생산과 연동하지는 못하면서 1970년대 글쓰기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를 전후한 시점에 대중들의 언어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철학자의 언어가 어떻게 시민 교양의 가능성을 촉발시켜 내며 ‘수필’의 외연을 확장시켜 냈는지 생각해보았다.

65) 이 원고는 1960년대 수기, 에세이, 수상 등의 1인칭 글쓰기를 ‘수필’로 인정하면서 철학자의 글쓰기를 처음 다루는 논의로서 한정된다.

66)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354쪽. (이 글에서 김성환은 “1970년대 노동수기”가 ‘공적인 의미’를 띠게 된 것은 노동자가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체득하게 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파악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동아일보』, 『경향신문』, 『수필』, 『수필문학』, 『현대문학』
김태길, 『웃는 갈대』, 동양출판, 1961.
_____, 『빛이 그리운 생각들』, 삼중당, 1964.
_____, 『검은 마음 흰 마음』, 민중서관, 1968.
김형석, 『고독이라는 병』, 삼중당, 1960.
_____, 『영원과 사랑의 대화』, 삼중당, 1961.
_____, 『한 인간의 이야기』(김형석 에세이 전집 10), 삼중당, 1973.
안병욱, 『철학노오트』, 경지사, 1963.
_____, 『도산사상』, 대성문화사, 1970.
_____, 『아름다운 창조』, 삼육출판사, 1970.

2. 논문과 단행본

- 김상태, 『소설과 수필의 경계』,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9-33쪽.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
회, 2012, 353-386쪽.
김용희, 『해설』, 『안병욱 수필 선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7.
김태길, 『체험과 사색』(우송 김태길 전집 15), 철학과현실사, 2010.
김현주, 『1930년대 수필 개념의 구축 과정』,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문학사연구
소, 2003, 254-276쪽.
문혜윤, 『1930년대 수필의 장과 장르의 역학』, 『반교어문』 29, 반교어문학회, 2010,
33-63쪽.
박숙자, 『1960년대 수기(手記)와 민(民)/중(衆)』, 『어문연구』 47-3, 한국어문교육연
구회, 2019, 243-269쪽.
오혜진, 『카뮈, 마르크스, 이어령: 1960년대 에세이즘을 통해 본 교양의 문화정치』,
『한국학논집』 5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137 - 178쪽.
유봉희, 『해설』, 『김태길 수필 선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7.
이윤희·김수지·류수열, 『수필 개념을 둘러싼 학술담론과 교육담론의 긴장』, 『문
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129-166쪽.
이재복, 『해설』, 『김형석 수필 선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7.
정태영, 『한국 수필문학 25년사』, 『논문집』, 경기대학교, 1971, 114-129쪽.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Abstract

An Age of Essays: Memoirs, Philosophical essays and Essays of the 1960s

Park, Suk-Ja(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ed to look back at the 1960s, which were assessed to be 'the age of essays', to survey denotations of essays, amplified by the discourse antagonism surrounding 'essays' and the writings of philosophers. Kim Hyeong Suk, Ahn Byeong Uk, and Kim Te Gil were philosophy professors of Yonsei University, Soongsil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riters of numerous essay collections of the 1960s. However,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conducted on them. This is because of old prejudices within literary history that primarily undervalue essays and practices that try to limit them as 'Literariness'. Essays of the 1960s became the flavor of the times based on democratic demands that attempted to objectify individual experiences and grounds that passed through the war and the April 19 Revolution. The language of philosophers was expropriated through the various senses of first person writing to readers of the times, which lacked civil culture and national morality. Deficits in public spheres of the 1950s and 1960s were filled by Kim Hyeong Suk's narrations of comfort and conquest based on historic experiences, Ahn Byeong Uk's logic of self-discipline and knowledge based on democracy, and Kim Te Gil's humor and introspection that objectified the lives of the petit bourgeois. However, as the essays of philosophers failed to connect with the public discourse of the age, they were unable to go as far as sparking or serving as a medium for civil culture in the 1970s. Regardless, as essays rose historically in the 1960s, thought was give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say' genre and in connection, to the merits and demerits of cultural history that possesses the language of philosophers.

(Keywords: Eessay, Memoirs, Philosopher, Civil culture, National morality, First person writing, Democratic affect, Literariness)

44 대중서사연구 제26권 3호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20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14일